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에 나타난 의미 패턴 연구

A Study on Semantic Patterns in Exhibition Posters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주 저 자 : 노옥영(Noh, Ok Young)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 융합

교 신 저 자 : 엄기준(Um, K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umkj@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sr.2021.3.42>

접수일자 2021. 08. 25. / 심사완료일자 2021. 09. 15. / 게재확정일자 2021. 09. 25.

Abstract

The exhibition poster expresses the message with the implied visual of verbal and non-verbal elements, and has appeal and appeal.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meaning and visualization of exhibition posters, and the meaning pattern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posters for 40 years of planned exhibitions held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hibition theme by period and the flow of visualization elements, we looked at the synchrony and diachronism of signs, Perth's sign meanings, interpretation of symbolic meanings and rhetoric on visualization of verbal expression techniques, etc. and the weight and trend of visualization element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eaning and expression methods of exhibition themes change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and cultural flows and issues of the times. From the center of relics, through relics, there was a change in the story of the overall culture of people's lives, and the themes of each era were highlighted and displayed. In the visualization of meaning expressed through images, colors, and typography, characteristic parts were seen between each element by era, and various notable changes and attempts have been made since the 2010s. Illustra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element of visual design, and the use of many colors has been restrained, but the expression of color has become bolder. In the typography, it was possible to see that the characters were imaged and expressed. This change can be at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expression methods as the meaning and means of the visual transmission process have been enriched. In the meantime, analysis research on posters has preceded, but in-depth semantic pattern research has been lacking, so this study was planned. It is meaningful as a study that consider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for effective message communication considering all factors.

Keyword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국립민속박물관), Exhibition Poster(전시 포스터), Semiotics(기호학)

요약

전시 포스터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함축된 비주얼로 메시지를 표현하며 호소력과 소구력을 갖는다. 본 연구는 전시 포스터에 나타나는 의미와 시각화에 대한 연구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40년간의 기획 전시 포스터를 분석해 의미 패턴을 확인하였다. 시기별 전시 테마와 시각화 요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호의 공식성과 통시성, 퍼스의 기호 의미, 기호적 의미 해석과 언어적 표현 기법의 시각화에 대한 수사법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시각화 요소들의 비중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시 테마는 사회, 문화적 흐름과 시대적 이슈들의 영향을 받아 의미와 표현 방식이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물 중심에서 유물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였고 시대별로 이슈가 되는 테마들이 부각되어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되는 의미 시각화는 시대별로 각 요소 간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였는데 2010년대부터 눈에 띄는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일러스트가 시각적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색채는 많은 컬러의 사용이 절제되었으나 색의 표현은 과감해 졌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가 이미지화 되어 표현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각전달 과정의 의미와 수단이 풍부해 지면서 표현 방식이 다양해 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포스터에 대한 분석 연구는 선행되었으나, 심도 있는 의미 패턴 연구는 미비한바 본 연구는 기획되었고, 의미 시각화 연구를 통해 단순히 미학적 가치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대적 트렌드, 기술적 요소, 의미의 전달력 측면 등을 모두 감안한 효과적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모두 감안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전시 포스터의 정의와 역할
- 2-2. 전시 포스터의 기호적 의미
- 2-3. 전시 포스터의 수사적 의미
- 2-4. 선행 연구 분석

3.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기초연구

- 3-1. 민속 문화 전시
- 3-2. 무형·유형 문화 전시
- 3-3. 연도별 전시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무형이든, 유형이든 문화를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시 대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미와 메시지를 담는 기획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 전시 요소들이 기획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시 포스터는 전시가 열리기 전 관람객이 처음 마주하는 매개체로 전시의 목적을 알리고 관람객에게 집약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시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전시의 가치와 의미, 분위기까지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통 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습을 조사·연구·수집하고 이를 전시·보존하는 곳이다.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일 년, 한국인의 일생 등을 전시하고 3개의 상설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 그리고 2개의 크고 작은 기획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4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여 한국인 생활 문화의 폭넓은 이해에 이바지 하고 있다.

4. 국립민속박물관 포스터 의미 분석

- 4-1. 분석 요소와 방법
- 4-2. 의미 분석
 - 4-2-1. 의미 변화 분석
 - 4-2-2. 주제의 표현 방식 분석
- 4-3. 의미 시각화 분석
 - 4-3-1. 이미지 패턴 변화 분석
 - 4-3-2. 색채의 패턴 변화 분석
 - 4-3-3. 타이포그래피의 패턴 변화 분석
- 4-4. 분석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이곳에서는 세시 풍속, 마을 신앙, 지역 축제 등 현재 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적 생활 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대 생활 문화까지 유형과 무형의 문화를 기록하고 연구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시선으로 전시를 열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전시 테마와 시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변화하는지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확인한다.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요소인 포스터를 통해 메시지의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포스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현 기법과 의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 패턴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토대가 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범위는 1980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열

1) <http://www.nfm.go.kr/home/subIndex/1190.do>

린 단기, 중장기의 기획·특별 전시의 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타 기관과 공동 주최로 개최하는 전시와 기존 자료전, 작품전과 같이 해당 분야를 활성화 시키거나 진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전시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전시 마당에서 수집한 121개의 포스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전시 제목을 통해 전시 테마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는 시간의 순서에 따른 포스터의 의미가 어떻게 시각화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주제의 표현 방식과 시각 구성 요소인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를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고 시대별 포스터에 나타난 의미 패턴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시 포스터의 정의와 역할

포스터(Poster)라는 말은 기둥을 뜻하는 포스트(Post)에서 유래했는데 광고나 벽보의 대부분이 기둥에 부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의 포스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의 이차원 공간에 디자인적 요소를 배열해 정보나 행사들을 알리거나 상품 광고 등을 위해 시각적 요소나 이미지를 정착시킨 것이다.²⁾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매체이면서 심미성과 기능성이라는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미지와 글이 간결·명료해야 하고, 의미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전시 포스터는 전시가 열리기 전 관람객이 처음 마주하는 매개체로 전시의 목적을 알리고 관람객에게 집약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말이나 문자만의 메시지 형식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각상(Visual Image)을 통하여 표현된다. 또한 알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만큼 주제를 명확히 하고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이미지를 연관, 융합시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포스터는 함축된 비주얼로 언어나 메시지로 표현되어져 호소력, 소구력을 갖게 된다. 또한 핵심 요소를

2) 정숙향, 전시회 포스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6.

확실히 하기 위해 시각 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로 배치하기도 한다.³⁾ 전시 포스터는 의미 전달을 위한 의미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2-2 전시 포스터의 기호적 의미

퍼스는 기호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도상, 지표, 상징이다. 도상은 대상체와 유사한 기호를 말한다. 그래서 도상은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대상체와 비슷하게 보이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표는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를 말한다. 지표와 대상체 사이에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이다. 그래서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⁴⁾

전시 포스터에서 비주얼 요소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체적인 해석을 지배하는 이미지 언어다. 내용과 주제를 창의적,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한 표현은 비주얼 요소를 의미 구현의 수단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내포한다.⁵⁾

전시 포스터 디자인에 비주얼 언어의 장점은 주제와 의 일치를 통해 관람객들이 비주얼 언어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비주얼 언어는 상상력을 통해 크리에이티브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대상의 상징성, 유사성을 빌려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듯 이미지는 기호화된 요소이며, 기호화된 시각적 상징성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호의 의미 작용인 은유와 환유의 표현 방법을 통해 추상적인 상징성으로 구체화 된다.⁶⁾

공시성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또는 시간의 어떤 단면에서 보이는 텍스트의 구조 상태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에 비해 통시성은 텍스트를 이루는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어떤 변화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항 대립 쌍들의 공시성은 텍스트의 잠재적 구조를 나타내며, 주어진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혀 준다. 이와 반대로, 텍스트의 통시성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들의 고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사성이 뚜렷

3) Ibid, pp.17-19.

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6, pp.40-43.

5) 이원균, 포스터 디자인의 시각적 상징성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

6) Ibid, p.2.

하다. 따라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를 명시해 준다.⁷⁾

포스터의 제목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떤 의미인지 공시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전시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호의 의미 작용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공시성을 띤 메시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기호적 의미 해석의 패턴 변화, 즉 테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2-3 전시 포스터의 수사적 의미

수사법은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표현 기법이다. 표현 방법에 따라 크게 강조법, 변화법, 비유법으로 나뉜다. 강조법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읽는 이에게 뚜렷한 인상을 느껴지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변화법은 단조로움을 없이 하여 문장에 생기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비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이다.⁸⁾

[표 1] 수사법 분류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직유법	도치법	과장법
은유법	인용법	반복법
풍유법	설의법	영탄법
의인법	반어법	열거법
대유법	문답법	점층·점강법
의성·의태법	대구법	대조법
활유법	생략법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교육되는 수사법의 세부 분류는 [표 1]과 같다.

디자인을 표현의 기술로 바라보는 디자인 수사학은 디자인의 표현에 주목한다. 그러나 표현에 주목한다는 것이 디자인의 심미성과 장식성에만 주목함을 의미하는

7)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6, p.183.

8) 두산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5370&cid=40942&categoryId=32972>

9) 엄기준, 김민정, 타이틀 시퀀스의 시각적 수사법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23(4), p.575.

것은 아니다. 수사학을 표현의 기술로 보는 입장에서 수사법은 표현 기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고 기법이기도 하다.¹⁰⁾

따라서 포스터에 언어적, 시각적 수사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시기별로 파악함으로써 표현의 기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4. 선행 연구 분석

포스터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조형 요소와 표현 유형, 시각적 상징성, 특징과 스타일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몇 가지의 포스터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전시 포스터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정숙향의 “전시회 포스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게슈탈트 유기화에 관한 요인 분석으로 형상과 배경의 관점에서 게슈탈트 시지각 법칙을 분석 요소로 3명의 해외 작가 작품을 분석하여 게슈탈트 이론이 적용되면 효과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수사법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수진, 김인성의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광고의 유형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적 수사법의 체계 위에 광고 이미지를 대입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언어적 수사법에 상응하는 시각적 수사법을 이미지 발상과 도출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포스터 디자인의 비주얼 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이원근의 “포스터 디자인의 시각적 상징성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포스터의 비주얼 요소가 어떤 상징성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가를 환경 포스터의 사례를 통해 기호학의 원리로 분석하였다.

포스터 문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노만섭의 “기호학적 변천에 따른 포스터 문화의 사례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 전달을 위한 기호학적 요소들이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연대별, 국가별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뤄진 기획 전시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시대별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기

10) 김수진, 김인성,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광고의 유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8, 9.6, pp.73-81.

호학적 관점에서 포스터의 의미와 시각화의 패턴 변화를 넓은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3.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기초 연구

3-1. 민속 문화 전시

1989년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 에서 "민속(民俗)은 한 문화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과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집단 및 개인에 의해 표현되는 전통에 기초한 창조물의 총체다. 그것의 기준과 가치들은 구전이나 모방 및 기타의 수단을 통해 전승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규정된 민속의 세부 유형은 "언어, 문학, 음악, 춤, 오락, 신화, 의례, 관습, 공예, 건축가, 기타 예술 등"으로 유·무형의 문화를 총망라 한다.¹¹⁾

2010년대 초반까지도 국립민속박물관이 추구해 온 민속 전시는 유형의 사물들에 국한되었다. 사물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분류·배치됨으로써 민족의 전 역사를 구축해 온 박물관의 전통적인 전시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아리랑 특별전'의 전시에서 무형 유산을 유형적인 전시로 시각화하여, 문화란 유·무형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¹²⁾

문화를 인류의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로, 하나의 체계이고 흐름이고 맥락으로 해석한 것이다.

3-2. 무형·유형 문화 전시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박물관에서 전시는 유형의 자료인 유물로서 재현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에서도 민속의 전승 주체인 사람 또는 '민(民)'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일반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전시를 하였다.

1993년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에 의해 '문화유산은 형체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과 형체가 없는 무형 유

산이 상호보완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¹³⁾이 받아들여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전시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0년대 후반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자체가 진행하게 되면서 '유물' 중심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 중심'으로 전시가 기획되기 시작했다.

문화 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문화유산 포털에서는 문화재의 유형을 유적 건조물, 유물, 기록 유산,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등록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형문화재는 전통 공연·예술, 전통 기술, 전통 지식, 구전 전통·표현, 전통 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 놀이·무예로 세분화하였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는 전시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이나 무형이나의 단순한 분류의 틀에서 벗어나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유·무형을 포괄한 기획 전시를 시대별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3-3. 연도별 전시

1980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최된 전시의 대표적인 포스터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2]~[표 5]와 같다. 연도별로 포스터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 그리고 시대별로 다루지는 전시 주제를 종합 분석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1980년대 실체가 있는 물건을 전시했고 포스터의 언어적, 시각적 표현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1990년대는 설명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언어적, 시각적 표현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한 것으로 비유했다. 2000년대는 제목에 부제를 달아 부연 설명을 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시각적 표현에서는 제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과거에 물질 위주의 전시에서 생활의 태도나 관념과 같은 정신적인 주제들이 보인다. 2010년대는 더 확장되어 지역과 세계의 문화를 다루는 전시가 많아졌고 언어적, 시각적인 표현에서도 비유, 강조, 변화의 표현들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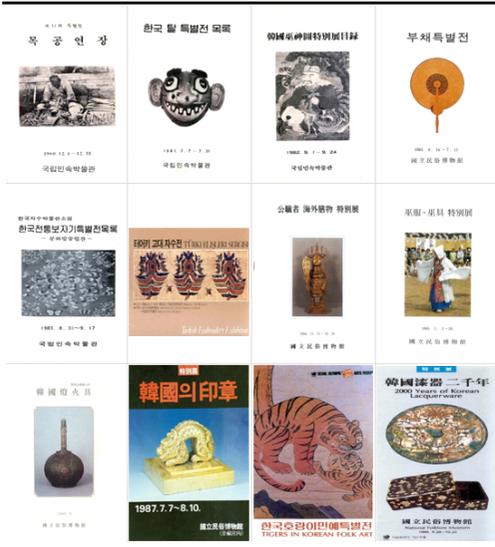
11) 정수진, 무형 문화유산의 박물관 전시-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비교 민속 학회, 2018.12 pp.126-127.

12) 이진욱, 아리랑 특별전,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012, 7, pp.113-117.

13) 조정실, 무형 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실천 민속학 연구, 2015, 25, pp.425-451.

[표 2] 1980년대 (1980~1989년) 포스터

1980년대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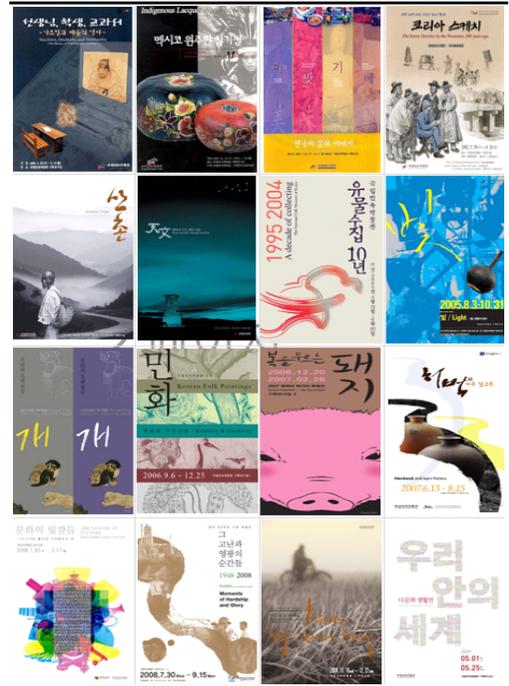
[표 3] 1990년대 (1990~1999년) 포스터

1990년대 포스터



[표 4] 2000년대 (2000~2009년) 포스터

2000년대 포스터



[표 5] 2010년대 (2010~2019년) 포스터

2010년대 포스터



[표 6] 시대별 포스터 기초 분석

연대	언어적 표현 (제목)	시각적 표현 (이미지)	테마 (공시성)
1980년대	○○○ 특별전 구체적 표현	민속품(물건), 사실적 표현	유물, 공예품
1990년대	○○의 ○○전 설명적 표현	일상 용품, 종교 용품 (물길 위주),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한 것으로 비유	생활관습, 의례, 한복, 복식, 건축 문화, 공예, 세계의 인종 문화, 불교, 삶과 윤리
2000년대	비유적 표현, 부제를 달아 부연 설명	생활, 태도, 정신 (물길과 경신), 제유나 환유의 비유적 표현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 한국 상징 문화, 생활관습, 공예품
2010년대	비유, 강조, 변화를 통한 의미 전달	지역 문화, 세계 문화, 문화 간 교류(관계성, 상징) 이미지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강조, 변화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 세계의 민속 문화, 다문화, 생활관습, 의례

4. 국립민속박물관 포스터 의미 분석

4-1. 분석 요소와 방법

국립민속박물관 포스터의 의미 분석을 위한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의미 분석을 위해 시대별 전시 테마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확인하고, 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퍼스의 기호학으로 분석한다. 시각적 구성 요소는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한다.

시각적 구성 요소의 첫 번째, 이미지는 사진과 일러스트의 활용 패턴을 살펴본다. 사진은 사실이나 사물을 그대로 담아 대중에게 확실한 신뢰를 전해 주는 기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거나 사물의 묘사를 다양하게 표현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일러스트는 어떤 대상을 특징 있게 표현하거나 정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경험과 해석을 바탕으로 주관적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무한한 표현 가능성과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색채는 색의 배색을 확인하기 위해 KSCA(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한국색채분석 기술표준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한다. 10년 단위로 분류한 포스터의 이미지를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면 색채를 분석할 수 있는데, 삽입한 포스터 이미지를 모자이크화, 색상 수 감소를 실행하면 그 결과로, 주요색과 보조색, 포인트 색의 이미지 배색 띠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와 글자, 글자와 그림, 글자의 움직임 등의 요소들이 조합되어 전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타이포의 느낌이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며 영향을 미치는데, 획 끝이 돌출된 세리프체와 세리프가 없는 산세리프체, 감정이 담긴 손글씨체로 분류해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또 레이아웃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4-2. 의미 분석

4-2-1. 의미 변화 분석

[표 2]~[표 6]을 통해 분석한 의미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전시의 테마는 칠기, 보자기, 부채 등과 같은 유물이나 공예품 중심의 주제가 주를 이룬다.

1990년대는 생활관습과 의례, 건축 문화, 불교문화, 복식 문화와 관련된 테마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특히 복식과 불교와 관련된 주제가 눈에 띈다.

2000년대는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와 한국의 상징문화, 생활관습 공예품의 주제 전시가 개최되었다. 2002년부터는 해당 연도의 십이간지 동물을 주제로, 연 초에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상징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는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 세계의 민속 문화와 다문화, 생활관습, 의례를 주제로 한 전시들이 개최되었다. 지역성을 드러내고 다문화와 관련된 전시들이 개최되기 시작한다.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물 중심의 공예품에서 유물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 전반의 지역 생활 문화에서 타 문화의 생활 문화까지 시선을 확장하여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주제의 표현 방식 분석

전시 제목은 주제와의 일치치를 통해 대중들이 전시 정보를 빨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된다. 이것은 비주얼 언어와도 연결되어 전시 테마를 표현하게 되는데 전시 제목으로 표현되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직관적인 도상을 표현하느냐,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느냐,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이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이나에 따라 주제의 표현 방식을 도상, 지표, 상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8] 전시 주제 표현 방식

연대	테마	표현 방식			전시 합계
		도상	지표	상징	
1980 년대	유물, 공예품	13EA (100%)			13EA (100%)
1990 년대	생활관습, 의례, 한복, 복식, 건축 문화, 공예, 세계의 인종 문화, 불교, 삶과 윤리	11EA (35%)	8EA (26%)	12EA (39%)	31EA (100%)
2000 년대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 한국 상징 문화, 생활관습, 공예품	9EA (31%)	6EA (21%)	14EA (48%)	29EA (100%)
2010 년대	십이간지의 동물, 지역의 민속 문화, 세계의 민속 문화, 다문화, 생활관습, 의례	16EA (33%)	10EA (21%)	22EA (46%)	48EA (100%)

[표 8]을 보면 1980년대는 유물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대상체의 이미지를 정직하게 사용한 도상의 기호가 1980~1989년 개최된 13개 전시 모두에서 표현되었다. 이후로는 지표와 상징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상징적 이미지 표현이 50%에 가까운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전시 테마 표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86년 등화구 특별전	1995년 한국 복식 이천년전	2008년 문화의 빛깔들 -100가지로 풀 어낸 우리문화 의 멋	2015년 밖상지교
유물	복식	한국 상징문화	세계 민속 문화
도상	도상	지표	상징

시대별로 주요 테마를 표현한 포스터는 [표 8]과 같다. 등화구 특별전과 한국 복식 이천년 전에서와 같이 1980년대와 90년대는 '~은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와 일치되는 기호의 도상을 언어와 시각의 표현에

사용했다. 2008년의 문화의 빛깔들 포스터는 우리 문화의 맛을 나타내는 사물들을 열거하여 한국 상징문화라는 테마를 강조하였는데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였다. 2015년 밖상지교는 유물의 형태를 텍스트에 포함시켜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변화를 주어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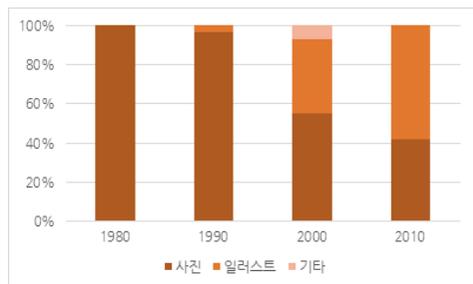
4-3. 의미 시각화 분석

4-3-1. 이미지의 패턴 변화 분석

[표 9]의 국립민속박물관의 포스터 이미지의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포스터는 사실에 근거한 리얼리티를 추구했다. 따라서 민화와 같이 기록된 이미지를 삽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전시와 관련된 실체가 있는 유물의 사진을 삽입해 표현하였다. 왜곡이나 편집 없이 사실이나 사물을 그대로 담은 사진이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사진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적 진실을 바탕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표 9] 포스터 이미지 표현 방식

연대	이미지			전시 합계
	사진 중심	일러스트 중심	기타	
1980 년대	13EA (100%)	-	-	13EA (100%)
1990 년대	28EA (97%)	1EA (3%)	-	31EA (100%)
2000 년대	16EA (55%)	11EA (38%)	2EA (7%)	29EA (100%)
2010 년대	20EA (42%)	28EA (58%)	-	48EA (100%)



[그림 1] 포스터 이미지 연대별 구성비

2000년대에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방법보다는 편집과 변형을 통해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 방법이 쓰이기 시작했다. 후반기에는 사진을 합성하

토몽타주와 일러스트를 활용한 표현 기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2010년대의 포스터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가 시각적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특징 있게 표현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려 할 때, 장식적인 주제만을 강조할 때 일러스트의 강점인 상상력의 표현으로 글의 내용과 연관되게 사용되었다. 감성적이고 유희적인 표현들이 많아 졌으며 사진의 경우 배경의 패턴이나 콜라주의 편집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표 10] 이미지 패턴 변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81년 한국탈 특별전	1997년 한국의 도량형전	2007년 허벅과 제주 질그릇	2012년 아시아 문화기획전 -혼례 婚禮
(유물)사진	(유물)사진	(유물)사진편집	일러스트

시대별로 주요 이미지 패턴을 보면 [표 10]과 같다. 1980년대는 한국탈 특별전의 이미지와 같이 유물의 사진을 배경 없이 중앙에 배치했다. 1990년대는 한국의 도량형전과 같이 지면 전체를 사용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컬러의 배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진의 구도와 배치도 중앙에서 중앙, 좌우로 다양해 졌다. 2007년의 허벅과 제주 질그릇 포스터를 보면 유물 사진에 질그릇의 거친 재질감과 형태를 라인으로 덧입혀 표현해 변화를 주었다. 2010년대는 아시아 문화 기획전-혼례와 같이 일러스트가 시각적 표현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제목과 이미지의 관계를 쉽게 연결 지을 수 있는 형태나 비유적 패턴의 일러스트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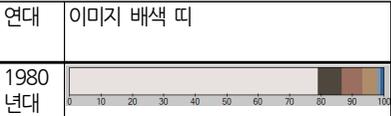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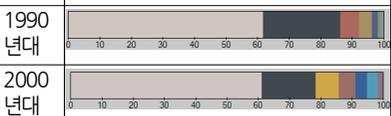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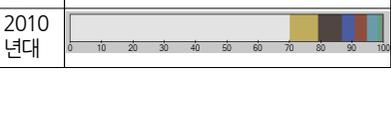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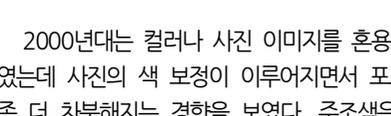
4-3-2. 색채의 패턴 변화 분석

시대별로 분류한 포스터를 한데 모아 한국표준색 색채 분석을 한 결과 [표 11]과 같다.

1980년대에 나타난 색채는 배경색 없이 단색의 사진이나 문자로 구성되었다. 하양의 배경색에 어두운 회갈색이나 흐린 갈색 계열의 보조색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포스터 이미지는 도록의 표지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조색으로 분홍빛 하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표지 색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1990년대는 단색의 컬러를 배경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진을 포스터의 전면 이미지로 사용하는 포스터가 보이면서 보조색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주조색은 분홍빛 회색, 보조색은 어두운 청회색이 나타나고 낮은 비율의 포인트 색이 나타났다.

[표 11] KSCA 한국표준색 색채 분포

연대	이미지 배색 띠	주조색 보조색
1980 년대		분홍빛 하양 갈색 계열
1990 년대		분홍빛 회색 어두운 청회색
2000 년대		분홍빛 회색 어두운 청회색
2010 년대		밝은 회색 흐린 노랑, 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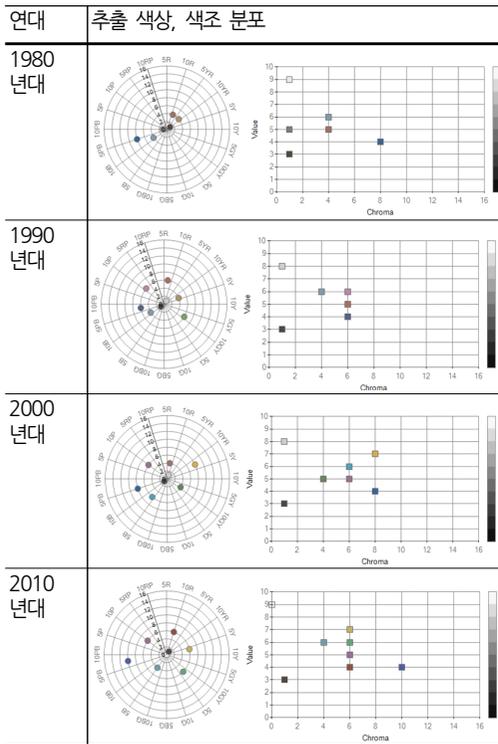
2000년대는 컬러나 사진 이미지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진의 색 보정이 이루어지면서 포스터의 톤이 좀 더 차분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조색은 분홍빛 회색이고 보조색은 어두운 청회색, 연한 황갈색, 어두운 회색, 적갈색 계열이 많이 보였으며 포인트 색으로 흐린 청록색과 탁한 자주색이 보이기도 했다.

2010년대 초기에는 강한 배경색 위에 단색의 사진과 패턴이 올려져 있는 조합이고 중기에는 배경색 없는 밝은 회색 바탕에 이미지나 텍스트가 보이는 배합이 많다. 후기로 갈수록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그래픽 요소들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많은 컬러의 사용을 절제하고 3~4가지의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차분한 색 배합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포스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밝은 회색의 주조색과 흐린 노랑의 보조색, 어두운 갈회색, 밝은 남색, 흐린 적갈색 흐린 파랑과 같은 포인트 색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포인트 색의 비율이 비슷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시대별로 색상과 색조의 분포는 [표 12]와 같다. 색상은 난색과 한색이 고루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색조는 고명도·고채도의 색조는

낮게 나타났고 저명도·저채도의 색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표 12] 연대별 색상, 색조 분포



4-3-3. 타이포의 패턴 변화 분석

[표 13]과 [그림 2]를 통해 타이포 패턴 변화를 알 수 있다.

1980년대 포스터에서 타이포는 한자가 많다. 타이틀은 모두 가로쓰기이고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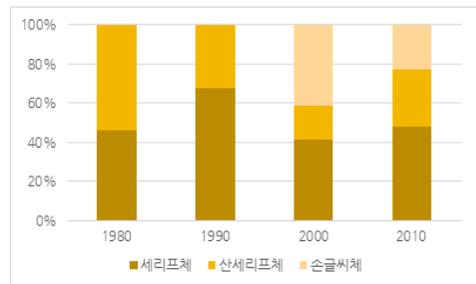
1990년대 타이포는 사진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레이아웃이 다양해졌다. 상단 중앙 또는 좌우측 상단 위치가 많다. 대부분 세리프체를 사용하고 타이틀은 가로와 세로쓰기가 함께 보인다.

2000년대는 초반에는 90년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중반 이후 손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식적인 손 글씨가 나타나면서 레이아웃에 변화가 보이는데 비주얼 중심의 포스터에는 문자의 레이아웃이 상단 중앙 또는 좌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타이틀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 커지면서 후기로 갈수록 문자의

레이아웃이 중앙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포스터 타이포그래피 표현

연대	타이포그래피			전시 합계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손글씨체	
1980 년대	6EA (46%)	7EA (54%)	-	13EA (100%)
1990 년대	20EA (68%)	10EA (32%)	-	31EA (100%)
2000 년대	12EA (41%)	5EA (17%)	12EA (41%)	29EA (100%)
2010 년대	23EA (48%)	14EA (29%)	11EA (23%)	48EA (100%)



[그림 2] 포스터 타이포그래피 연대별 구성비

2010년대는 문자를 이미지화하여 과거 포스터와는 다른 감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손 글씨체가 고루 쓰였는데 타이포의 변형이나 편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문자 중심의 레이아웃이 많아졌으며 위치도 중앙에 이미지의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 많아졌다. 의미의 상징성이 강조되어 전시의 내용과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까지 함축시켜 표현함으로써 타이포의 느낌이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를 보면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흐름을 알 수 있다. 산세리프체와 같이 장식선이 없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폰트가 사용된 포스터는 내용을 강하게 부각시켜 메시지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폰트는 배경 이미지나 컬러의 영향을 받아 세부적인 디테일이 많은 배경에는 단순하고 큰 사이즈로 표현이 되었고, 반대로 색과 이미지가 두드러지지 않은 배경에는 폰트에서 흥미로움과 시각적인 분위기를 더해 자유로이 표현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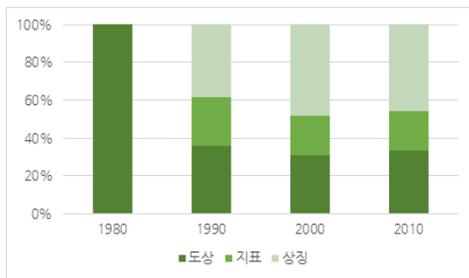
[표 14] 타이포그래피 패턴 변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83년 한국보자기 특별전	1997년 석남 송석하 전	2007년 수복, 장수를 바라는 마음	2011년 소금 꽃이 핀다
산세리프체	세리프체	손글씨체	손글씨체
상단, 가로쓰기	중앙, 세로쓰기	우측 상단, 중앙	중앙

4-4. 분석 소결

유형과 무형의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를 시대별로 분석한 종합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변화 분석에서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물 중심의 공예품에서 유물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 전반의 지역 생활 문화에서 타 문화의 생활 문화까지 영역과 시선을 확장하여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전시 테마 표현 방식 추이

전시 테마의 표현 방식은 [그림 3]과 같다. 1980년대는 도상성만으로 표현됐던 것이 차츰 사실적이거나 구체적 이미지에 외연적 의미를 내포한 지표와 상징의 표현 방식이 더해졌다. 90년대 이후에는 도상, 지표, 상징의 표현 방식이 고루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5] 포스터 시각적 요소 종합

연대	표현 방식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1980년대	사실에 근거한 리얼리티 추구. 민화와 같은 기록 이미지와 실체가 있는 유물 사진 활용.	배경색 없이 단색의 사진이나 문자 구성. 하양 의 배경색에 어두운 회갈색 계열의 보조색이 많이 사용됨.	세리프와 산세리프체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됨. 타이틀은 가로쓰기.
1990년대	왜곡이나 편집 없는 리얼리티 추구. 시각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진 위주.	단색 컬러를 배경색으로 사용. 보조색의 수량과 비율이 이전에 비해 많아짐.	세리프체의 비율이 높음. 타이틀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 가로와 세로쓰기가 함께 보임.
2000년대	사진의 경우 편집과 변형을 통한 표현 방식 사용, 사진 합성, 포토몽타주와 일러스트 활용한 표현 기법.	컬러나 사진 이미지를 혼용. 사진의 색 보정과 톤 조절이 보임. 중채도의 강한 대비.	장식적인 손글씨체가 나타나기 시작. 타이틀의 크기가 커지고 레이아웃이 다양해 짐.
2010년대	일러스트가 시각적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 사진의 경우 배경의 패턴이나 클라주의 편집된 형태로 표현.	텍스트와 이미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 많은 컬러의 사용 절제하면서 색의 표현은 다양해 짐.	문자가 이미지화 되어 표현됨.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손글씨체가 고루 사용됨. 타이포의 변형이 빈번히 이루어 짐.

[표 15]를 보면 시기별로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방식 변화 양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포스터의 시각 요소가 크게 변화되는 시기는 2000년대로 이미지와 색채 사용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사진은 과거 사실 위주의 진부한 표현에서 포토몽타주와 일러스트와 같은 이미지들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색채는 보조색과 포인트 색의 비중과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컬러가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쓰여 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배색수를 절제하고 중명도, 저채도의 차분한 색 배합이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부터 일러스트와 같은 이미지가 주요 시각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감각적인 처리가 돋보였다. 컬러를 절제하기 위해 이미지를 단색 처리하여 조합하는 경향이 보였다. 문자가 이미지화 된 포스터는 많은 컬러의 사용을 절제했으나 컬러를 사용할 때는 강한 보색 조화를 이루어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글의 레이아웃과 색상의 톤이 포스터의 여백과 다른 그래픽 요소들과 합쳐져 분위기를 알리는 상호보완 작용

을 드러냈다. 또한 타이포그래피의 손 글씨체는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타이포의 느낌이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며 실험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방법들이 이후로 많이 시도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기별로 전시 테마와 시각 구성 요소들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는데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했다.

분석 결과, 민속이 인류의 보편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유무형의 문화라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전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테마는 사회, 문화적 흐름과 시대적 이슈들의 영향을 받아 의미와 표현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대별로 지역 문화, 월드컵, 세계화, 다문화와 같은 해당 시기의 사회 이슈들이 전시 주제에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박물관의 전시 포스터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만들어 지는 만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의미의 시각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시각화하는 과정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1980년대~1990년대는 유물의 사진이나 풍속화, 민화와 같이 직관적이고 설명되어지는 그림을 표현 자료로 적극 활용해 시각화되었다. 2000년대는 시각화 과정에서 유사성을 연결 짓거나 상징적인 요소들을 단순화하거나 유희적인 표현으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경험과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형식으로 더 친근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전시 포스터에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이루어졌고 유물의 색감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복합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세련되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유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변화를 주었다.

최근의 전시 포스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상징적 용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별도의 인쇄 없이 데이터로만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다. 인쇄의 형태이건 데이터의 형태이건 매체의 변화가 있을 뿐 포스터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그대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시 포스터에서는 시각 전달 과정의 의미와 수단이 풍요로워진 만큼 매체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포스터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의미와 시각화의 패턴 변화를 넓은 시각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화 방법들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유형화된 포스터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좁은 시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6
2. 김수진, 김인성,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광고의 유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8, 9(6)
3. 노만섭, 기호학적 변천에 따른 포스터 문화의 사례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09, 제24호
4. 이건욱, 아리랑 특별전,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012, 제7권
5. 정수진, 무형문화유산의 박물관 전시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비교민속학회, 2018, 제67집
6. 조각현, 디자인 공모전 수상 광고의 수사법 활용에 관한 연구 -수상자를 중심으로-, 2015, 제51호
7. 조정실, 무형문화유산 전시에서 소스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015, 12(25)
8. 이원균, 포스터디자인의 시각적 상징성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 정숙향, 전시회 포스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0. mdesign.designhouse.co.kr
11. www.doopedia.co.kr
12. www.naver.com
13. www.nfm.go.kr